



를 도입하여 운영

-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담금(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

• 대기오염 예보 강화

-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오존 경보제를 도입하여 운영

-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97년부터 오존경보발생을 예측하여 알려주는 오존 예보제 도입
  - ※ 2003년에는 오존 주의보 총 17일(48회) 발령 (발령 기준: 0.12ppm/h, 환경기준:0.1ppm/h)
- 미세먼지 사전 예보제 실시를 위하여 연구용역('03. 3)결과를 토대로 예보시스템(수도권 15개소) 신뢰도 평가('03. 12)
- 황사 특보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한·중 황사 공동 모니터링, 황사자료 공유,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정례회(6회) 등 추진
- 황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02년부터 황사특보제 도입

4.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악취 발생실태조사, 악취검사기관제도 도입 등

... 2003년 12월 15일

## E.U.-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규제

유럽 공동체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독성 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제한하여 고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고무에는 타이어를 더 쉽게 처리하고 비오는 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이 첨가되는데, 여기에는 발암물질인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가 포함될 수 있다고 EC는 설명했다.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들은 타이어가 도로와 계속 부딪혀 닳았을 때 대기로 퍼질 수 있고 대기로 퍼진 독성물질들은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을 채택한 목표는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발암물질을 포함한 타이어 부

환경정책

악취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악취 방지법」 제정('04. 2. 9 공포)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03. 5)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도서관·터미널 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제도 등 도입

◦ 건설장비의 소음인증제 도입 추진

- 건설장비의 소음표시 의무제 및 소음인증제 도입 추진을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추진

III.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수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관리권역 설정, 사업장 총량규제 대상규모 및 세부 시행방안,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등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04. 하반기)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 수립

- 대기개선목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소요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 연구사업('03. 9~'04. 8, KEI) 결과 및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마련

◦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마련

-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 및 감시방법, 배출권거래제 시행방안 등 세부 시행규정 마련

- 대기환경용량, 대기관리권역 설정,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지역배출총량제 시행방안 확정

국제환경동향

스러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EC는 설명했다. 의학 전문가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이전에 낡은 타이어를 태우고, 타이어를 제조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PAHs가 대기로 퍼지면서 199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E.U.는 오일에 포함된 이런 화학물질의 농도를 제한하고 오일과 타이어 회사에서 좀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길 원하고 있다. 고무산업 유럽연합회(European Association of the Rubber Industry, BLIC)는 이 제안을 환영했지만 EC는 타이어에 있는 PAHs의 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고무

산업분야에서는 2009년 말쯤 오일 대체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BLIC의 사무총장 Fazilet Cinaralp는 설명했다. 또한 대체물질은 이미 만들었지만 집중적인 도로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C는 2008년 말까지 안전한 새로운 오일로 전면 교체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경주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C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성이 필요하므로 엄격한 규정 적용에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E.U. 산업장관들과 유럽 의회는 이것이 법률화 되기 전에 동의했다. 관련 법은 2005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